

청원소 입소



19 명의 젊은 여성들이 노트담 수녀회에서 청원자로서 수도 생활에 한걸음을 더 내디뎠기에, 동아프리카 성령 총대리구에서는 참으로 기쁜 날이었습니다.

2024 년 5 월 30 일, 지원자들은 동아프리카 다양한 지역 출신의 양성 지도자 수녀들과 함께 우간다 음팔라 공동체의 청원소에 도착했습니다. 스콜라스티카 마리 수녀는 우간다의 성녀 줄리 양성소 소속이던 네 명의 지원자들과, 메리 노엘라 수녀와 메리 마가렛 수녀는 아루샤와 나이로비에서 13 명의 지원자들과, 이틀 먼저 모잠비크에서 도착한 두 명의 지원자들은 함께 음팔라 공동체 수녀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.

지원자들은 “생명수의 샘으로 오라.”라는 주제를 숙고하는 이틀 간의 준비 과정을 보냈습니다.

2024 년 6 월 2 일 저녁에는 19 명의 지원자들이 청원소에 들어왔습니다. 청원자 지도 수녀인 바이올렛 마리 수녀는 기도 예식을 이끌어 지원자들이 부대리구장인 메리 마가렛 수녀가 청원자들을 받아들이게 했습니다.

그 이후에는 맛있는 식사와 지원자들의 오락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. 그들의 기쁨, 하느님과 양성 지도자들에 대한 감사가 노래와 춤으로 표현되었습니다.

서원 수녀들은 숙고 중에 지원자들과 격려의 말을 나누었습니다. 이 행사를 위해 미국의 메리 딘 수녀가 자리했던 것은 축복이었습니다. 수녀 역시 지원자들에게 지혜와 격려의 말을 건네 주었습니다.

메리 노엘라 수녀, SND